- 한국교육방송공사 합격자기소개서 모음편



EBS • 한국교육방송공사

취준생 여러분!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, 당신입니다

본 자료는 인크루트(www.incruit.com) 공채의신이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 저작권은 인크루트에 있으며,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수록된 합격 자기소개서 목차		
	기업명(계열사명)	직무
1	한국교육방송공사	기자



인크루트 합격자소서 모음집 활용방법!

- 1. Ctrl+F를 눌러, 보고 싶은 기업명(계열사명)이나 직무를검색하여 원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인한다!
- 2. 합격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인크루트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는다!
- 3. 아래 서비스를 활용하여 합격에 한 발 다가간다! (클릭하면 이동 가능)





한국교육방송공사 / 직무 : 기자

→ 원문보기

1. 자기소개(성장과정, 성격의 장단점, 좌우명)(1,500 Byte 이내)

<성실함으로 얻은 신뢰>

책임감 있는 사람은 평소 성실하며,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제가 맡은 일은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져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. 학창시절 책임감 있는 모습은 반장, 부반장 등의 학급 임원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, 작은 업무라 여길 수 있는 주번 일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. 지각, 결석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하여 남는 시간을 활용하며 저절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.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해내지만 고집에 세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가 맡은 일은 성실히 하고자 하는 곧은 마인드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<계란으로 바위치기>

저는 평소 '계란으로 바위치기'라는 말을 좋아하며 그 계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. 보통은 불가능한 일, 무모한 일을 의미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지만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무언가 도전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.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해왔으며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 도전과 경험을 통해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. 실패도 미래를 위한 기초공사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견고한 건물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2. 지원동기 및 입사 후 직무수행계획(800 Byte 이내)

어릴 적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방송이 EBS 채널이었습니다. EBS를 통해 공부도 하고, 역사도 배웠지만 교육기자를 보고 기자라는 꿈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. 그 계기로 어린이 기자단 활동까지 하면서 자신감과 친화력을 키웠습니다. 남다른 호기심과 뛰어난 관찰력 때문인지 기자의 역할을 곧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. 꿈을 키워준 EBS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오랜 시간 한 가지 꿈만 키워온 열정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기자가 되겠습니다. EBS를 만나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시선에서 가장 궁금해 할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나가겠습니다. 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는 일인 만큼 부지런한 습관으로 철저한 시간 관리와 체력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.



취준생 여러분!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, 당신입니다

3. 직무 관련 경력사항(학교생활/직장경력, 교육사항 등 포함)(800 Byte 이내)

고등학생 때 지역 내 교육사랑 기자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학교 공부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. 교육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보니 학교 책상에서 앉아만 있어서는 배울 수 없던 삶의 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부족함이 보였던 글 솜씨도 경력이 많으신분들의 도움으로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. 어린 나이였지만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한 현황과 개선할점을 직접 생각해보면서 훗날 EBS의 기자에로서 교육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조금이나마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.

4.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낸 사례(과정과 결과를 나누어 작성)(800 Byte 이내)

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실질적인 활동이 많은 OO대학교로의 편입을 결정했습니다.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도 컸지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. 먼저 일반편입보다 경쟁률이 많이 낮은 학사편입을 결정하고, 그 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정보를 모았습니다. '지피지기면 백전백승'이라는 마음으로 전년도 편입 모집요강이나 인터넷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정보공유를 하고 서로 의지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. 편입학교나 전문학원도 있었지만 해내고자 하는 의지로 독학을 결정했습니다. 매일 계획표대로 실행하며 잠을 덜 자더라도 그 날하기로 한 것은 꼭 해냈습니다.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목표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.

5.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 자신의 행동 패턴(당위성을 기술하는 것 아님)(800 Byte 이내)

사실 예전에는 조금 고집이 센 모습으로 제 주장을 우기곤 했습니다. 제 의견이 성공을 하면 뿌듯함도 느꼈었습니다. 그러다 대학 조별 프로젝트 했을 때였습니다. 한 친구와 의견이 부딪히고 전 또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. 그 친구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 의견대로 해주었는데,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. 그 결과 저뿐 아니라 저희 조원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때 혼자만의 일에서는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경청하는 힘을 기르고 의견이 다른 경우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을 했습니다. '반대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?'라는 생각은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고,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.

